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4. 28.(금) 10:00	배포일시	2023. 4. 27.(목) 10:00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Partner Organization of IOM		담당부서	연구교육실
		담 당 자	김 수 정 02)3788-8041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이민정책연구원, 유엔난민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최로 2023난민포럼 개최

“이민정책연구원, 6개 대학(서울대, 강원대, 성균관대, 전북대, 건국대, 제주대) 과 함께 난민제도와 정책 발전을 위해 연구 협력도 모색하기로”

□ **이민정책연구원은 2023. 4. 28.(금) 14시 30분부터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난민의 국내정착과 보호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라는 주제로 「2023 난민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2018년 4월, 제주도에 500여명의 예멘 난민 입국 후 지난 5년간의 난민 재정착, 난민 유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난민수용 시도에 대한 평가 및 ‘국가 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방한 중인 유엔난민기구 질리안 트릭스(Gillian Triggs) 최고대표보의 기조발제도 있을 예정이다.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개최될 이번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기획되었다.

- 1세션에서는 국내의 난민보호 제도를 ‘난민인정 절차’와 ‘지역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조망한다. 지금까지 난민제도와 정책이 주로 절차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이제는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지자체 관점에서의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 2세션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관심 받고 있는 재정착난민의 보충적 수

용경로를 논의한다. 특별히 여기에서 난민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기 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다각적인 정책방안이 소개된다.

- 3세션에서는 이민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6곳의 대학 기관(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강원대 난민연구센터,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센터, 전북대 동남아시아연구소, 건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과 함께 난민제도와 정책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연구협력 방안을 토의한다.

□ **이민정책연구원 손홍기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난민 포럼이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 후 지난 5년간의 난민 정착의 지원과 노력을 돌아보고, 연구자뿐만 아니라 난민당사자와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같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향후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함께 난민제도와 정책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연구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 이번 포럼은 현장 및 실시간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방청할 수 있다. 참석 사전신청은 4월 27일까지 가능하다(사전신청 링크: bit.ly/41lZv6N).

붙임. (국/영문) 포스터 각 1부. 끝.